제주 다이빙의 대표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윤유빈, 이예주, 강지호(왼쪽부터)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비상! 2023 제주체육 열전 <12> 다이빙 윤유빈·강지호·이예주

새싹들 국제경험까지… 주역으로 '우뚝'

초등부 시절부터 두각 나타내 제주 다이빙 계보 이어
지난해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에도 참가 자신감 획득
각 부 정상에서 성공적인 피날레 준비… 맹활약 기대

제주 다이빙의 명성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재확인됐다. 지난해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은 금 5, 은 6, 동 3개 등 모두 14개를 수확하며 종목 사상 최다는 물론 선수단 최다 메달 종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 바탕에는 꿈나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등부의 박지혁은 물론 일반부의 제주도청과 도수영연맹 소속의 선수들이 합작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린 후배들의 성장세가 가파른 게 주효했다.

제주 다이빙 미래의 주역으로 고3(남녕고)이 되는 윤유빈을 비롯 중3이 되는 강지호와 이예주(이상 한라중)를 빼놓을 수 없다.

윤유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제주다이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지호와 이예주 역시 중학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뽐내고 있다. 다이빙 트리오가 따낸 메달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2 세계주니어 다이빙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경험까지 축적했다. 때문에 올해도 이들의 강세는 확실시되고 있다.

윤유빈은 올해 고등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강지호와 이예주도 마지막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회에서 정상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엔 기량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상비군 훈련도 마쳤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

이젠 학생부 선수단의 리더가 된 윤유빈은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전국체육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메달을 따내도록 하겠다"며 "시합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 후회 없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지호는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실수한 것을 거울삼아 올해는 좀 더 나은 기량으로 정상에 서고 싶다. 열심히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예주는 "올해 소년체전 5관왕 달성이 목표인데, 우선 개인종목을 완전한 내 종목으로 만들고 같이 싱크로에서 혜주와 호흡을 잘 맞춰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는 자신감을 표했다.

트리오의 맹활약이 기대될 뿐이다. 그리고 2023년 새해에도 제주의 다이빙은 또다시 진화할 것이 분명하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의 합심, 노력과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분위기가 성장 및 진화의 자양분이어서 그렇다.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강해영 지도자는 "대회 때마다 긴장감과 부담감을 갖고 출전하는 것 같아 매번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회를 단순히 즐길 수는 없지만 즐기면서 하면 부담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격려해주고 싶다"고 조언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서귀포축구센터 통과… 제주제일고 탈락

제24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

서귀포축구센터는 제24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제주제일고는 예선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서귀포축구센터는 16일 전남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J조 예선 2차전에서 새만금FC와의 경기에서 부제훈의 결승골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 서귀포축구센터는 첫 경기에서 성남FC U18인 풍생고와 1-1 무승부에 이어 승리를 거두면서 이로써 1승 1무의 전적으로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20강이 겨루는 본선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첫 경기에서 1패를 안고 2차전에 나선 제주제일고는 이날 마동축구장에서 치러진 H조 광주FC U18인 금호고와의 경기에서 1-4로 패하며 2패의 전적으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제주제일고는 전반 11분과 14분에 상대 박강영에 멀티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후반 들어 전열을 가다듬은 제주제일고는 후반 2분 양보혁이 추격의 고삐를 당기는 골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2분 뒤 상대의 캡틴 강찬솔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설상가상 후반 30분 네 번째 골까지 허용하며 결국 1-4 패배로 경기를 끝내야 했다.

제주제일고는 오는 18일 경기 능곡고와의 3차전을 통해 유종의 미를 기대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바람의 손자와 레전드…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3 대한민국 대표팀 이정후(왼쪽)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표팀 공식 첫 훈련에 참가해 김기태 타격코치와 야수 동료들의 타격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수고교 윈터리그 야구대회 "플레이볼"

16일부터 22일까지 5개팀 참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우수고교 윈터리그 야구대회가 다시 막을 올렸다.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주종합운동장 야구장과 제주고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제18회 우수고교 윈터리그는 코로나와 다른 지역 대회 개최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참가팀은 많이 줄었지만 지역별 명문팀들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홈팀 제주고를 비롯 서울의 배명고와 휘문고, 대구고, 용마고 등이 2023 시즌을 향한 첫 실전을 시작했다.

대회 첫날 제주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대구고와 배명고의 경기에서는 배명이 1-0으로 승리했으며, 이어 벌어진 휘문고와 용마고의 경기는 용마고가 9-0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이날 세 번째 경기로 예정된 대구고와 제주고의 경기는 비 날씨로 17일로 순연됐다.

대회 이틀째는 휘문과 대구, 배명과 용마, 대구와 제주의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조상윤기자